



오늘의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2 | 신앙칼럼 | 5 | (사)섬김과나눔 마천데이케어센터 |
| 3 | 사역부서별 추천도서 명문장 | 6 | 교회사용설명서 |
| 4 | 여름방학 신간 소개 | 7 | 십자말씀이 / 성극팀 위문예배 |



플로깅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플로깅은 스웨덴어의 ‘이삭을 줍는다(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입니다. 2016년에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되어 북유럽을 거쳐 전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학교나 지역사회, 각종 단체 등에서 캠페인을 벌이거나 챌린지 등을 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동호회까지 만들어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등 생활 속 환경운동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쓰레기를 담으며 달린다는 의미에서 ‘쓰담달리기’라는 순화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산책이나 조깅, 등산 등을 하며 하는 활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모두 챙길 수 있는 1석2조의 친환경운동입니다. 쓰레기를 담기 위해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스쿼트나 런지 자세와 비슷하고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들고 달리기 때문에 단순한 조깅보다는 칼로리 소모가 더 커서 운동효과가 더 좋습니다.

기온이 오르기 전인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후 조금 선선해지는 저녁이 되면 산책이나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작은 하천을 따라 만들어진 길을 걸거나 공원에서 걷기도 하고 한강을 따라 달리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왕 하는 산책이나 조깅이라면 손에 쓰레기 봉지와 집게를 들고 걸으며 길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면 어떨까요? 시간을 내어 모이지 않아도 매일 하는 일상 속에서 작은 더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세계를 돌보는 일. 하나님의 선교 실천방안 중 하나입니다.

신앙칼럼

산 정상에서 배우는 신앙의 지혜



등산은 언제나 나에게 깊은 성찰을 주는 활동이다. 가파른 산을 오르면서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땀이 흐른다. 하지만 정상에 도달해서 아래의 경치를 보면서 금세 잊혀진다. 또한 잠깐의 시간 동안이지만 내 눈은 호강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성취감과 만족감에 내 마음도 한껏 고양된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시편 121편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구절이 떠오른다.

힘들게 오른 정상에 서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배웠다면 이제 정상에서 내려가야 하는 길, 또 다른 배움이 기다리고 있다. 천천히 산을 내려오면서, 나는 등산로에 피어 있는 여러 풀들과 꽃들을 발견한다. ‘아, 오를 때는 왜 이 예쁜 꽃들을 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올라갈 때는 오로지 목표인 정상을 향해 정신없이 올라갔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선 찬찬히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기면서 아름다운 꽃들과 주변의 다양한 사물들이 내 눈을 더 즐겁게 해준다.

이런 경험은 내가 경험한 삶의 축소판과도 같다. 사회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나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성공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한 나머지, 주변의 소소한 아름다움을 잊고 살아간다. 바쁘게 살아온 나날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 가족들의 배려,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놓쳐버리곤 한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소중함을 마음 깊이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구절이 떠오른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작은 아름다움들도 많다. 이제 정상에서 내려가는 길에 나는 좀 더 천천히 걸으며, 올라올 때 보지 못했던 작은 것 하나하나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삶의 여정을 천천히 걸으며,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내려가는 길에도 눈부신 꽃들이 피어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 그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싶다. 시편 92편 12-13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와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는 최근 묵상한 QT구절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믿음의 성장을 꿈꾸며 살아가고 싶다.

최민기 집사 / 2교구

사역별 추천도서 명문장
의료선교부

의사, 주석중 - 사람을 사랑한, 삶을 사랑한 진짜 의사 이야기

예기치 못한 이별 환자와 그 가족들, 병원 동료들, 이웃 주민들과 친구들. 그의 부재를 슬퍼하고 그의 생전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장례식장으로 몰려왔다. 계속되는 국민적 관심은 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제작으로까지 이어졌다.

동료들의 눈물 "한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누구랑 상의해야 하나 싶었어요. 주 교수님은 나에게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가끔 환자 치료가 힘들어 좌절할 때면 교수님은 늘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해.'라고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죠."

장남의 인사 정리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는 서류들 속에는, 평소 사용하시던 만년필로 직접 쓴 몇 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벽에 있는 작은 게시판에도 기도문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문으로 쓴 그 기도문의 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 but what can I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 is all in God's hands." 정성을 다해 수술하고 환자를 돌보지만 내 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께서 도와 주십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그렇게 적어 두신 듯합니다.

그가 그린 천국 제가 죽어 영혼이 육체를 떠나갈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한없는 은혜와 자비 속에서 아내와 가족,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한 모든 사람과 함께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 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저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두려움이 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 거짓과 허위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천국을 상상합니다.

휴일없는 삶 흉부외과 중에서도 응급환자가 많은 대동맥 수술 전문이었던 그에게 공휴일은 따로 없었다. 모처럼 가족과 떠난 여행에서도, 매우 모이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도 응급 호출이 오면 그는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삶에 적응한 지 오래였다. 막내는 그때를 추억하며 담담하게 말했다. "원래 의사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환자바라기 힘차고 긍정적인 말과 표정으로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힘을 주는 의사, 환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마저 헤아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의사.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기쁘게 감당했다.

예수님의 손 그의 연구실 컴퓨터 배경화면에는 한 이름 모를 작가가 그린 그림이 있다. 그림 속 의사는 수술대에 누워 있는 환자의 가슴을 열어 수술 중이다. 의사 옆에는 예수님이 한 손으로 의사의 어깨를 살포시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수술하는 의사의 손을 안내하고 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수술하는 의사를 돕고 격려하시는 장면이다. 실제로 수술실에서 이런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흉부외과 의사인 그에게 수술은 기도와 응답의 자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였다.

와, 이런 날이 있네 주석중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원했다. 주인이 부르는 자리로 언제나 달려가는 종처럼, 그도 자기에게 오는 환자를 하나님이 보내 주셨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그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였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기도는 진실함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끝없는 배움 그는 취미를 하나 시작해도 관련 역사부터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책을 읽고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은 그에게 어떤 일보다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주었다.

살아날 확률 병원에서는야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간호사가 집에서 쉬고

있는 교수에게 밤에 "이런 환자가 있는데 어찌죠?"라고 연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주 교수는 연락을 받으면 언제나 '오케이'라고 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반드시 살 확률이 생긴다."

그래도 재미있는 일 재미있는 일에도 고난은 있다. 환자들은 주 교수를 가리켜 '저승사자의 먹살을 잡고 싸우는 분'이라고 했다. 이것은 필수 의료인 그의 전공과도 관련이 있다. 그는 수술실 밖에서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했다. 그가 남긴 기도의 8할은 고통에 대한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겨 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시는 길이라고 여겼다.

선배의 뒷모습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본다. 잔소리만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없다. 주석중은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선배였다. 자신이 직접 그렇게 살았기에 그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었다. 주석중의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었다. 환자와 동료, 후배를 위하고 그들의 성장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항상 손해 보는 쪽을 택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목표로 했다.

너그러우신 주님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고 도우심을 구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속에서 새 힘을 얻고 골방에서 나오면, 사람들은 그의 인격에서 나오는 친절, 인애, 미소, 인내, 용서, 감사, 배려를 보았다. 이는 하나님의 종이자 참된 신자로 살아가고자 한 그의 기도의 열매이기도 했다.

가장 귀중한 자산 주석중은 수술과 환자 케어, 연구와 논문, 학회 등의 일 이외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빼놓지 않는 일과였다. 그렇다고 그의 삶이 온통 의무와 책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자신다운' 여가와 취미를 즐겼다.

문학소년 그는 문학을 사랑한 독서가이자 장서가였다.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지식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는 읽고 또 읽었다.

함께한 일상 둘째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까? 좋은 추억을 만들까?"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선율이 흐르는 인생 그는 주님의교회 1부 찬양대에서도 활동했다. 막내 아들을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보내고 시간의 여유가 생긴 아내는 교회 권사님의 권유로 찬양대에 들어갔다. 아내는 혼자 교회에 오는 남편이 신경 쓰여 주석중에게 찬양대를 같이 하자고 권유했다. 그는 아내의 부탁에 마지못해 나섰지만, 막상 해 보니 좋았던 모양이다.

내가 의지할 분 그가 기록한 성경 구절의 의미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이다. 이는 그가 수년간 기도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은 핵심 주제이다.

기도의 삶 그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 그가 남긴 기도문의 시작은 늘 주기도였다.

고통 속에서 그의 기도에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최후 승리를 믿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다짐이 잘 나타나 있다.

더 깊은 곳으로 그가 세운 은퇴 후의 계획 중 하나는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었다. "목회자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예요. 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려고 한 것 같아요."

믿음과 구원 그는 2023년 4월부터 매일 아침 가족 단체 메시지 방에 성경 구절을 남겼다. 보통 말씀만 올렸지만, 믿음과 신앙에 대해 자신이 깨달은 바도 나눴다. 어떤 날은 하루에 여러 개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내용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고통과 자유의지, 사랑에 대한 주석중의 묵상이었다.

함줄함울 / 의사, 주석중(정명, 소복소복)

기독교
신간소개

여름방학, 아이들과 함께 읽기 좋은 신간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교단 기관지인 기독교공보에 더운 여름에 아이들과 함께 읽기 좋은 신간이 소개되어 내용을 전제합니다. 바쁜 하루 중 잠깐의 시간을 내어 조금씩 읽어준다면 책의 내용도 함께 나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줄함울**



어쩌다 학부모

김성중 지음 / 두란노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김성중 교수가 이론과 현실 조안을 아우르는 자녀양육서를 출간했다. 저자는 먼저 '학부모'를 '자녀의 학업에 책임을 다하며 먼저 배우는 자'로 정의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자녀를 바르게 키울 부모의 사명을 강조한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공부도 잘 해 꿈을 이루는 자녀로 성장시키는 법, 부모와 자녀를 위한 기도법, 학업의 능력을 올리는 칭찬법 등 자녀와 부모의 관계 안에서 꼭 필요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모은 책이다.



건빵전도일기

한미연 지음 / 세움북스

교회 밖 청소년들의 등학교길을 함께하며 100회에 걸친 '건빵 전도'를 해온 한미연 목사의 간증과 전도 팁을 담은 책이다. 20년간 교회학교 교사와 교육전도사로 섬긴 저자가 다음세대를 품게 된 이야기를 비롯해 시험기간, 크리스마스, 고3 전도 등 아이들의 일상 흐름을 따라 함께한 전도 여정을 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 청소년들과 함께한 저자의 이야기를 들여보자.



1318 고민상담 A to Z

김재욱 지음 / 생명의말씀사

우리 인생의 고민에 정답이 있을까? 열 등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고민' 많은 13~18살 친구들에게 '말을 건네는 책'이다. 4명의 또래 친구들과 선생님의 대화로 이루어진 이 책은 26개 키워드를 주제로 하나님과 10대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청소년기라는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기,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로워지기, 직업과 결정하기, 왜곡된 성적 호기심에서 벗어나기 등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춰 꼭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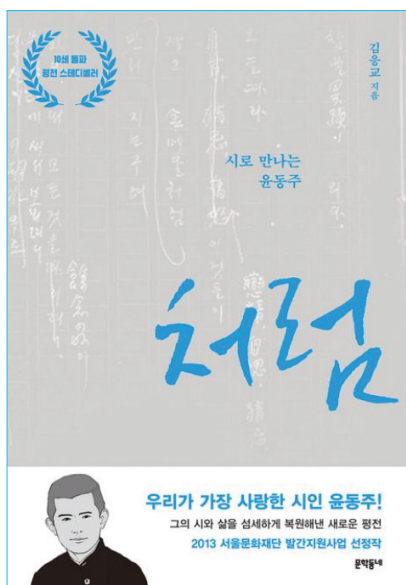
영적 흐름을 바꿔라

정해주 지음 / 예영커뮤니케이션

1월 첫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1년간 함께할 수 있는 가정예배 지침서가 출간됐다. "부모 세대의 '가정예배 오답 노트'를 다시 써야 한다"고 말하는 저자는 교회와 부모가 함께 다음세대를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정예배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의 터를 만드는 법을 이 책을 통해 전달한다. 가정예배 지침은 함께 찬양하기, 본문읽기, 생각하기, 관찰하기, 나눠보기, 기도하기, 축복하기 순서로 이어지며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간결하고 쉬운 내용의 글이 담겨 있다. **남기는 기자 / 기독교공보**

함줄함울
추천도서

무더위를 잊게 해줄 어른들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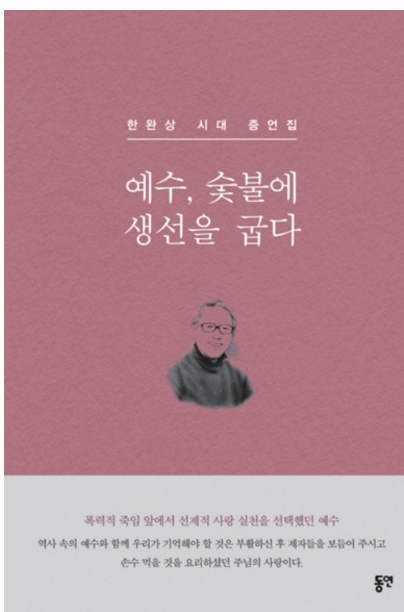
처럼 - 시로 만나는 윤동주

김응교 지음 / 문학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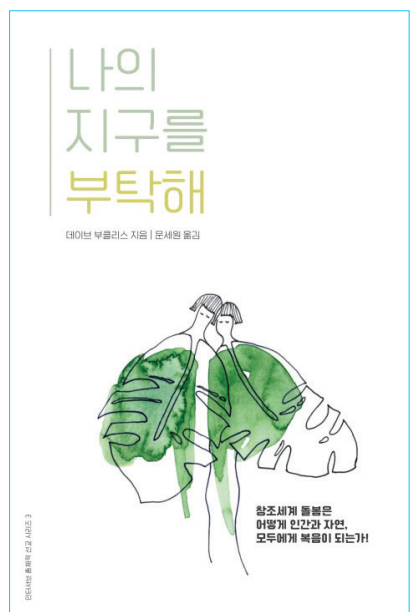
기독교시민교양을 위한 나눔 윤리학

김혜령 지음 / 잉클링즈



예수, 숯불에 생선을 굽다

한완상 지음 / 동연



나의 지구를 부탁해

데이브 부클리스 지음 / 앤커출판&미디어

(사)섬김과나눔
마천데이케어센터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행복한 일상을..

(사)섬김과나눔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마천종합사회복지관 병설 마천데이케어센터는 마천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월~토요일. 아침부터 밤까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17명의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센터장(복지관장 겸직) 1명, 팀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요양보호사 3명, 조리사, 운전기사 등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에 대한 심사 이후, 요양 등급(인지 및 신체 건강 상태에 따라 등급이 상이함)을 받아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십니다. 현재는 4명의 남자 어르신과 15명의 여자 어르신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일부 어르신이 휠체어 및 지팡이를 이용하지만 대체로 거동이 가능하고 어르신들의 인지건강 상태가 다양하여 센터의 하루는 소소한 이벤트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라디오 음악과 아침뉴스도 듣고, 국민체조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침 8시에 운전원 선생님과 간호조무사님이 스탠스로 어르신을 모시러 가면서 첫 일정이 시작됩니다. 직원들도, 어르신들도, 가족들도 다 분주한 시간이지요. 송영은 오전 10시까지 1, 2차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등원하시는 어르신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울무차를 드시면서 라디오 FM 93.1을 들려드리며 평화로운 클래식 음악으로 시작하게 하고 센터의 수(水)치르기, 발 마사지기, 안마 의자, 공기압을 이용해 쉬면서 편히 아침을 맞이하십니다.

2차 팀이 도착하기 전까지 1차 팀으로 오신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와 함께 '오늘의 뉴스'시간을 가집니다. 조간신문을 보면서 오늘의 사건 사고를 읽어드리면 듣고, 공감하고, 염려하고, 아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근사한 굿모닝 타임입니다.

어느덧 2차 팀이 도착(10시 20분)하면 간호조무사가 진행하는 국민체조가 시작됩니다. 노래에 맞춰 어르신과 직원 모두가 스트레칭하면서 몸을 풁니다. 뇌경색으로 편마비가 되신 남자 어르신도 한 팔을 들고 앉아서라도 체조를 열심히 따라 하십니다. 그리고 연하운동을 합니다. 목삼킴에도 노화로 연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일 유튜브 영상에 따라 연하운동을 진행합니다.



어느 학생들보다 다채로운 활동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매일 잘 짜인 시간표대로 직원과 외부 전문 강사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십니다. 물리치료하고, 색칠하거나, 원고지 글쓰기 등 인지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진행되는데, 음악 심리치

료, 웃음 레크리에이션, 원예 활동, 공예 활동, 일상생활 적응, 한글 숫자 공부, 동화 구연, 요리, 낱말퀴즈, 지남력 훈련 등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국민체조와 중식 후 걷기 활동 외에 배드민턴, 공체조, 밴드체조, 전통놀이, 볼링, 풍선놀이, 하키 등을 진행해서 어르신들의 인지와 신체기능이 유지 및 약간의 향상을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 후 어르신 건강에 가장 중요한 식사를 영양사, 조리사가 준비하여 드리고 직원들이 식사보조를 해드립니다.



계절마다, 절기마다 야외 활동과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센터는 봄이 되면 벚꽃 구경, 장미공원 나들이. 딸기농장 체험을 나갑니다. 그리고 가을 나들이도 갑니다. 절기별로 명절행사가 있고 센터의 특별프로그램으로 추수감사 나눔 행사를 엽니다. 겨울엔 '깊은 겨울' 문예 공모(어르신, 가족, 직원대상)를 통해 서로를 향한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발표하면서 공감하는 감동의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연중 마지막 행사로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 나눔 행사에는 야심차게 <동화극 구연>을 해 보려 합니다. 10월 18일(금) 저녁 어르신들이 직접 극 구연을 해보려 하는데, 이런 새로운 도전에 어르신과 직원 모두가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관객으로 가족분들과 친척, 복지관 이용자분들도 초대하는데, 주님의교회 교인으로 오셔서 축하해 주실 분들은 누구든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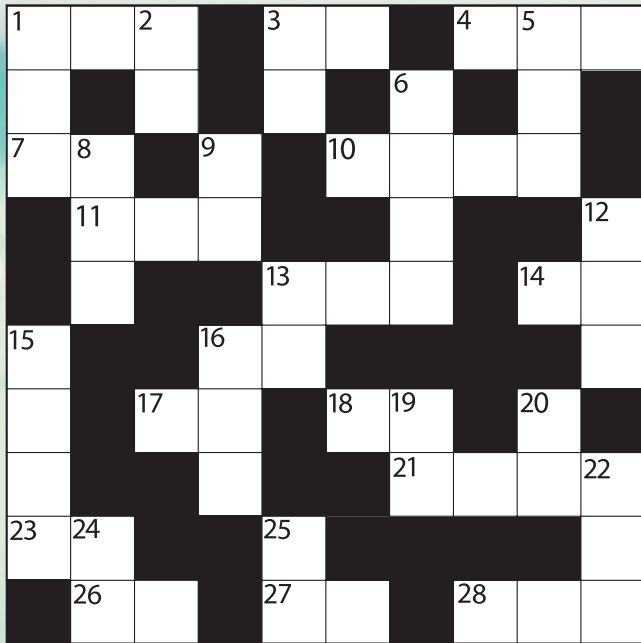
우리 센터는 여러분들이 함께 도움을 주시는데 특히, 조용히 정기적으로 오셔서 어르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교회 이미용팀과 한국무용 선교팀, 미술치료 봉사팀의 섬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센터는 평생을 일하고 자녀들을 키워 오신 어르신들이 맞이하는 노년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드리고자 건강상태에 맞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섬김과나눔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아모스 편

이번 호는 <아모스> 편입니다. <아모스>의 저자는 기원전 8세기의 선지자 아모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모스는 목동 출신으로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부유한 자들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제사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새로운 세상을 예언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86호 '요엘' 편 정답



가로 힌트

- 남유다 드고아 태생의 선지자. 양을 치며 뽕나무를 길렀던 사람이었다. (암 1:1)
-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로, 번제나 화목제와 같이 드렸다. (암 5:22)
- 다메섹의 아람 왕. '하닷의 아들' 이라는 뜻이다. (암 1:4)
- 지구 위에서 대륙이 아닌 곳. 염분이 있는 물로 덮여 있다. (암 7:4)
- 야곱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민족. 야곱이 압박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에 불려진 이름이기도 하다. (암 3:12)
- <요엘>에 이어 <아모스>에도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석청과 함께 먹었던 곤충. '산에서 뛰어 다니는 것'이라는 어원에서 유래했으며, 연예인 유재석의 별명이기도 하다. (암 7:1)
- 블레셋의 도시중 하나. 유다 지파와 단 지파의 경계에 있었다. (암 1:8)
-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 아람 사람이 사는 지역이었다. (암 9:7)
- 가나안 지역에 있던 성읍. 고모라와 함께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으며, 지금은 사해의 어느 지역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암 4:11)
-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 가운데 하나. 제물 자체를 완전히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올린다. (암 5:22)
- 통탄하며 부르는 노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애통해하며 전하는 말을 뜻하기도 한다. (암 5:1)
- 북이스라엘의 수도. 예수님의 착한 ○○○○ 사람의 비유를 볼 때, 후일 마치 이방인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암 8:14)
- 갈릴리호수 동쪽에서 헬몬산 남쪽에 이르는 지역. 토양이 비옥하여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했다. (암 4:1)
-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왕궁과 신전, 시장과 함께 주민들의 거주지가 있었다. (암 6:8)
- 이동시 사용하는 텐트와 같은 시설. 기둥을 세우고 천이나 가죽을 덮어 만들었다. (암 9:11)
- 참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 도토리가 열린다. (암 2:9)

세로 힌트

- 에돔 산지와 네게브 산지 사이에 있는 긴 골짜기. 또는 이 골짜기를 포함한 저지대를 두루 부르는 명칭이다. (암 6:14)
- 무덤. 땅 밑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암 9:2)
- 공기와 같은 매질을 통해 전파되는 파동. 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의 파동을 말한다. (암 1:2)
- 다메섹의 왕. 벤하닷 2세의 신하였는데 선지자 엘리야가 왕이 될 것임을 예언했으며, 벤하닷 2세를 암살하고 왕위에 올랐다. (암 9:5)
- 블레셋의 성읍. 지중해 연안에 있었으며, 후일 헤롯 왕이 이곳에 궁전을 세웠다. (암 1:8)
- 시리아 사막에 있는 도시.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곳이다. (암 5:27)
-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정해진 날.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등을 말한다. (암 8:10)
- 높은 곳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모스는 사마리아를 향해 이곳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했다. (암 4:3)
-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 '붉다' 는 뜻으로, 에돔 사람들이 살던 지역도 붉은 색의 흙과 바위로 이루어졌다. (암 1:6)
- 네게브 지역에 있던 성읍. 이스라엘 땅의 남쪽 경계에 있었다. (암 5:5)
-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 왕이 사용하는 고급 식재료인 곱게 빻은 밀이나 보리가루였다. (암 5:25)
- 블레셋의 도시. 이곳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혔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에돔에 팔아넘겨 선지자 아모스, 스가랴에 의해 심판을 선언 받았다. (암 1:6)
- 인체에서 목 위에 있는 부분. 어떤 것의 으뜸을 말하기도 한다. (암 6:1)
- 요단강 동쪽 지역 산악지역.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했다. (암 2:9)
- 산 위에 쌓은 성. 성경에서는 안전한 피난처의 의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했다. (암 5:9)
- 목초가 많은 언덕이나 들판. 양들이 편히 거닐며 쉴 수 있는 휴식처를 뜻하기도 한다. (암 1:2)

교회사용설명서③

비전트립 이해하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주님의교회에서는 올해도 비전트립을 진행합니다. 흔히 ‘비전트립’을 ‘단기선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선교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교인이, 짧은 기간 동안, 해외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온다는 점에서 겉보기는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신학적인 관점에서 두 용어는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

‘단기선교’란,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현지 선교사의 사역을 도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역을 직접 실천하는 동시에, 참가자들의 장기선교 헌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선교’라는 사명을 참가자가 직접 실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비전트립’이란, 다른 문화권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인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비전트립은 현지 문화와 현지 선교사역에 대한 이해, 현지 선교사와의 교제에 초점을 둡니다.

사용 방법

2024년 주님의교회 비전트립은 코스타리카(7.16~23), 필리핀(7.24~29), 키르기스스탄(7.27~8.4), 베트남(7.29~8.3), 필리핀(몬탈반-청소년숲, 8.4~8), 필리핀(몬탈반-의료선교, 8.24~27)에서 진행됩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비전트립에 동참할 교인들을 모집했고, 신청한

분들은 비전트립에 대비한 여러 교육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 기회를 놓친 분들이 지금 비전트립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참여할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비전트립을 위해 기도하고, 현지 선교사역을 돕기 위한 금품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물품으로 접수하기도 했으나, 운반하는 일 자체가 번거로울 뿐더러 물품 별로 해당 국가 입국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 요즘에는 후원금이 더 요긴하게 쓰입니다. 해외선교분과위원회 비전트립지원부 이재홍 안수집사(010-7738-4455)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비전트립은 사역에 참여하는 자의 만족이나 성과가 목적이 아니라,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선교사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비전을 찾기 위한 활동입니다. 나라별로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때로 한국 문화를 전파하려 하거나, 현지인에 대한 가벼운 동정심을 갖거나, 우월감을 갖고 자기 과시를 하거나, 현지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일상을 변화시키려 하거나, 단기간에 사역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비전트립의 기본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자기만족이나 자신의 의를 버리고, 겸손하게 현지 문화와 현지 선교사의 삶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가는 비전트립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함글함글

성극팀
위문예배

중앙보훈교회 환우 위문예배를 마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5년만에 보훈병원 환우들을 만났다. 한시영 목사님 말씀 선포 후 성극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찬송가 합창 중창과 함께 공연했다. 시작하고 몇 분 후부터 성도들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도 눈물로 연기와 찬양을 하며 주님께 예배드렸다.

주기철 목사님 역은 최우철 안수집사가 수고하셨고 김정래 안수집사, 박형규 집사, 김도운 집사, 조홍진 집사, 정기순 권사, 황영임 집사, 총연출 손경숙 권사, 무대연출 함혜련 권사. 각자의 역을 충실히 잘 표현

해 주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송곳핀 위를 걷는 장면에서는 성도들의 울음소리가 커졌고, 송농 한 그릇 먹고 싶다는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대사와 하늘나라에서 승리하였다는 큰 울림의 목소리.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찬송가 413장)'를 합창하며 막을 내렸다. 성극 사역을 와서 환우들과 함께 눈물로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손경숙 권사 / 전문선교분과위원회 기획운영부(성극팀)





2024
SAT 7.20
SUN 7.28

주님의교회 유소년수
**여름
사역
일정**

유년부 7.27 토 - 28 주일 | 장소 주님의교회
초등부 7.26 금 - 28 주일 | 장소 홍천 가람리조트
소년부 7.26 금 - 28 주일 | 장소 주님의교회
EM 7.20 토 - 21 주일, 24 수 | 장소 주님의교회

유소년수 유튜브
유소년수 카카오톡 채널

주님의교회 유소년수
PCL Children's Ministry

교회일정

8/10(토) ~ 11(주일) 너나들이부 여름수련회

알립니다

1. 청년부 여름수련회

주제 : MVP (the Most Valuable Prayer)

일시 : 8/23(금) ~ 25(주일)

장소 : 로템 힐링타운(원주)

강사 : 김정형 교수(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2. 의료선교부 해외의료선교

일시 : 8/24(토) ~ 27(화)

장소 : 필리핀 문탈반

3. 전화상담부 여름방학

기간 : 7/23(화) ~ 8/30(금)

재개 : 9/3(화)

4. 주방휴무

기간 : 7/28(주일) ~ 8/11(주일)

모집합니다

1. 전화상담부 전문코치 봉사자

문의 : 박동진 안수집사(010.8970.5952)

2. 살롬찬양대 남성파트(테너, 베이스) 대원

문의 : 김은희 권사(010.5093.8577)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 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 곳은 우리의 고향

주님의교회

